



## 강화군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군민 중심 생활 인프라 대폭 확충

강화군에는 군민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만 지혜의 숲 도서관 개관, 관청근린공원 준공, 강화북부문화센터 준공, 한겨레 얼 체험관 준공, 강화군 행복센터 준공, 강화기독교 역사 기념관 준공, 감염병대응센터 기공,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준공,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준공, 어재연 장군과 무명용사 사당 총장사 준공, 화개정원 1·2단계 준공 등 획기적인 군정을 선보였다.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정주여건이 대폭 향상됐다.

### ■ 수도권 최고의 휴식형 가족공원 '화개정원' 탄생 임박

최근 교동도 화개산에 수도권 최고의 휴식형 가족공원 '화개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개정원에는 1단계 사업으로 역사·문화·평화·추억·치유의 5색 테마정원을 만들고, 2단계 사업으로 석가산, 물과 폭포, 암석원 조성을 완료했다. 특히 어울림·대물림·되살림·두드림으로 화개정원을 군민들과 함께 가꾸고, 조성할 방침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향후, 계절 수목과 초화를 식재하고 야간 경관을 더해 품격 높은 수도권 최고의 휴양시설로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사업이 완료된다.

### ■ 생동감 넘치는 문화휴식 공간 '온가족 힐링 숲' 근린공원

강화군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 속 SOC 사업에 박차를 가해, 지난 3월 남산·관청근린 공원을 개방했다.

온 가족이 휴식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온가족 힐링 숲'을 테마로 산책로를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완만하게 조성했으며, 자연을 닮은 각종 시설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힐링을 즐길 수 있다.

### ■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 스포츠 복지

군민 누구나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신정체육시설, 강화군생활체육센터, 국궁장 등 대규모 스포츠 시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여 동네에서 즐기는 소규모 체육 시설 인프라 또한 구축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받는 스포츠 도시의 면모를 갖추가고 있다. **▶**

- 최백하 기자



# 외포리에 퇴역군함을 활용한 함상공원 조성

## 1,960톤급 '마산함', 150톤급 '참수리호' 무상대여 어촌뉴딜, 종합어시장 등과 함께 관광활성화 기대



(좌) 외포리 함상공원 조감도 (우) 마산함



강화군이 30여 년간 대한민국 바다 수호의 임무를 수행한 퇴역함정 1,960톤급 호위함인 '마산함'과 150톤급 고속정인 '참수리호'를 해군으로부터 무상대여 받아 내가면 외포리에 함상공원을 조성한다.

군은 한국 최초의 해군사관학교였던 '통제영학당지'가 자리잡은 강화군에 퇴역군함을 활용한 함상공원 조성에 나서, 최근 해군본부와 퇴역군함의 무상대여를 위한 관련 협의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여승인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마산함'은 국산 전투함 시대를 연 주역으로서 우리나라 기술로 건조한 최초의 국산 호위함이다. 림팩(RIMPAC)과 MCSOF 등 해군의 주요 훈련에 참가했고, 국산 호위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 횡단과

5대양을 순항하는 등 국방 최전선에서 최근까지 현역으로 활약했다.

현재 군함은 진해 해군기지에 보관 중이며,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군함을 접안할 수 있는 8~9월 대조기 시기에 맞춰 외포리 해상에 거치되며, 전시공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개방된다.

전함 내부는 해군생활을 간접체험할 수 있도록 함교실, 통신실, 레이더실 등을 그대로 재현해, 군함의 위용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과 함상공원, 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등의 외포리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외포리를 생태·문화·관광·레저가 공존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 유천호, 강화군수 선거 무소속 후보 출마 선언

**“국민의힘 결자해지 차원에서 강화군수 후보 무공천 요청”**  
**“군민 공천 후보’로서 압도적으로 당선돼 국민의힘 복당할 것”**



유천호, 강화군수 선거 무소속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는 12일 오전 10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강화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치렀고, 68%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지난 5월 9일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았다.

하지만 윤재상 예비후보는 경선 이후 법원에 유천호 후보의 '후보자 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47년 전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결정한 공천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는 "경선에서 참패한 윤재상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뒤늦게 법원에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경선 전에 낸 것도 아니고, 경선에 지고 나니까 내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윤재상 후보의 몰염치한 정치 행각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물론이고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는 선관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의 결정과 당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강화군수 후보로 무소속으로 등록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고, 향후 당선되더라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군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하며, "강화군민만 믿고, 강화군민께서 공천한 '군민공천 후보'로 뛰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어 당당히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군수의 강화군수 선거 무소속 후보 출마 기자회견 직후에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강화지역 후보자들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다. 후보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 후보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 : 2022. 6. 1(수)

## 강화군수 후보

**한연희** 기호1 더불어민주당

출생 1959.06.20 (62세)      경력 (전)평택부시장  
 학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현)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  
 (행정학 석사)



**유천호** 기호4 무소속

출생 1951.04.07 (71세)      경력 (현)강화군수  
 학력 인천전문대학 사회체육과 졸업 (전)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체육전문학사)



**윤재상** 기호5 무소속

출생 1958.11.15 (63세)      경력 (전)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의원  
 학력 삼량종합고등학교 졸업 (전)제7대 강화군의회 의장



## 인천시의원 후보

**문경신** 기호1  
 더불어민주당

**5월 17일 사퇴**

출생 1961.05.07 (61세)  
 학력 인하대학교대학원 졸업  
 (도시계획학 석사)  
 경력 (전)강화군청 안전경제산업국장  
 (전)강화군체육회 사무국장



**박용철** 기호2  
 국민의힘

출생 1964.11.11 (57세)  
 학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학위 취득  
 경력 (전)제6대~8대 강화군의회의원



### 강화군 기초의원 후보 가선거구

**오현식** 기호1-가  
더불어민주당



출생 1986.02.28 (36세)  
학력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  
경력 (현)제8대 강화군의회의원  
(전)(사)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 이사

**박승한** 기호2-가  
국민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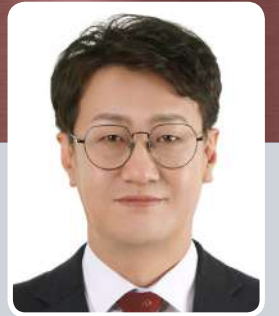
출생 1965.05.10(57세)  
학력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전)제6대 강화군의회 의원  
(현)제8대 강화군의회 부의장(하반기)

**김건하** 기호1-나  
더불어민주당



출생 1958.11.15(63세)  
학력 미기재  
경력 (현)강화군의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기호2-나  
국민의힘



출생 1974.08.03(47세)  
학력 강화고등학교 졸업  
경력 (전)유천호 강화군수 수행비서  
(현)강화군축구협회장

### 강화군 기초의원 후보 나선거구

**박흥열** 기호1  
더불어민주당



출생 1963.07.01(58세)  
학력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 (전)강화뉴스 발행인  
(현)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 대외협력위원장

**배충원** 기호2-가  
국민의힘



출생 1958.11.14 (63세)  
학력 삼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 (전)경인북부수협 상임 이사  
(현)강화군경영자협의회 부회장

**이영민** 기호4  
무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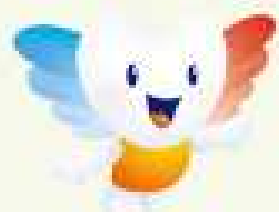


출생 1975.07.21(46세)  
학력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 (전)육군 대위 중대장  
(현)강화산단로 택배화물 대표자

**최중찬** 기호2-나  
국민의힘



출생 1974.11.16 (47세)  
학력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5학기 재학중  
경력 (현)강화군자율방범연합대장  
(현)강화경찰서 시민경찰 3기 회장



선거콜센터  
**1390**

선거법안내 및 신고전화상담

**권태형** 기호2-다  
국민의힘



출생 1959.08.01 (62세)  
학력 템플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1994.08~1996.01)  
경력 (전)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기획민원국 고충처리담당공무원  
(현)국민의힘 인천시당 인천투자유치 전략위원장

# '남산행복카페 & 푸드스토어' 오픈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공간

### 운영수익으로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 사업 추진



강화군 행복센터



남산행복카페 & 푸드스토어

'남산행복카페 & 푸드스토어'는 강화군 행복센터 1층에 자리를 잡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 조합을 설립해 집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익의 일부는 마을환경개선, 집수리지원, 취약계층 지원, 주민일자리창출 등 남산마을의 정주요건 및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남산마을은 지난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강화읍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남산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3월 문을 연 강화군행복센터로 통합·이전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냈다.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강화군행복센터, 달빛공원, 고려 테마거리, 노후 주거지 정비, 남산마을 신활력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플랫폼화하고 주민 간 협업 과정에서 자립 역량과 공동체 결속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조합설립을 위해 애써주신 강화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고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모범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 강화군, 지자체 최초 한국관광 대표캐릭터 '킹덤프렌즈'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킹덤프렌즈)와 지역관광 홍보 콜라보 추진



강화군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국내 지자체로는 최초로 한국관광 대표캐릭터 '킹덤프렌즈'를 활용한 관광 홍보 콜라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과 한국관광공사는 '킹덤프렌즈'가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홍보 웹툰을 제작 중에 있다.

특히, 마니산은 '킹덤프렌즈' 캐릭터인 호랑이와 곰이 등장하는 단군신화가 탄생한 의미가 깊은 곳으로 이 곳을 배경으로 하는 킹덤프렌즈와의 콜라보가 더욱 기대된다.

'킹덤프렌즈'는 디지털마케팅 강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캐릭터로 온·오프라인에서 홍보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강화군은 올해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고려궁지' 등에서 킹덤프렌즈를 만날 수 있는 이벤트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기획 중에 있다.

오는 6월에는 오프라인 지역관광 홍보로 고려궁지에서 '킹덤프렌즈를 찾아라' 이벤트를 개최해, 캐릭터와 함께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면 킹덤프렌즈 오징어게임 세트, 캐릭터 인형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인 '킹덤프렌즈'가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강화군에서 관광 마케팅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 - 최백하 기자

# 풍년농사 기대 고품질 강화섬쌀 첫 모내기

## 추석 전 맛있는 햅쌀 수확



강화군 첫 모내기(용정리 김학빈 농가)

강화군은 지난 2일 강화읍 용정리 김학빈 농가의 논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추석 전 출하를 위한 조생종의 이앙이 본격 이어진다.

군은 고품질 강화섬쌀의 안정생산을 위해 모내기가 적기에 시작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영농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내 모내기 적기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로 변덕스러운 봄 기상에 육묘 중인 못자리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군은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 농협,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에 나서, 지난해 밥맛이 좋은 우수 계통(품종)을 최종 선발하고 '나들미'를 품종 출원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못자리 상토 및 영농자재, 농기계 은행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과 지역에 적합한 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금풍양조, 인천시 1호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전통주 산업육성 발돋움

### 22년 농식품부 주관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선정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의 '금풍양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2022년 찾아가는 양조장'에 인천광역시 1호로 선정됐다.

'금풍양조'는 1931년부터 술을 생산해 3대째 운영 중으로 양조장의 옛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1층에는 백 년이 넘는 우물이 보존되어 있고, 2층은 목조 건물의 서까래가 아래 누룩을 띄우던 넓은 창고가 있다.

현재는 공연, 전시, 체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내 최초로 비건마크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전통주의 고급화를 선도하고 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체험형 공간으로 만드는 공모사업이다. 전통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길상면 '금풍양조'

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을 계기로 지역 전통주의 6차 산업화로 관광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잠재력 있는 양조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 14일,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 “올여름 물놀이는 여기로 오세요” 첫 물놀이시설, 코로나 침묵 깨고 전면 개방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강화군이 오는 14일부터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신정체육공원은 약 5만㎡ 부지에 물놀이시설 외 생활체육센터(배드민턴), 야구장, 생태연못, 산책로,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개장을 미뤄오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

에 따라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개장을 맞았다. 군은 안전과 위생에 초점을 맞춰 최첨단 여과시설을 갖추고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강화군에는 변변한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없던 터라 영유아 등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강화군의 여름철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14일을 시작으로 주말에만 운영하다가 7월ㄷ 방학시즌이 되면 평일에도 운영(월요일 휴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무료로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체육회(032-933-9696) 또는 강화군청 행정과(032-930-322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물놀이장인 만큼 가족단위 나들이 장소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오랜 기다림 끝에 문을 여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 5월엔 인천 섬 나들이

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 인천시민 80%, 타 시·도민 50% 할인  
차 없이도 즐거운 당일 섬 여행지 추천 ... 대이작도·덕적도·신시모도



대이작도 풀등섬



덕적도 적송 소나무 숲



신시모도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인천시가 가족과 함께 차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당일 섬 여행지를 추천했다.

인천시가 추천한 여행지는 옹진군 소재의 섬으로 일평균 3편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해 접근이 용이하며, 총 면적이 20km<sup>2</sup>를 넘지 않는 작은 섬으로 차 없이 걸거나 자전거로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자의 여객선 이용요금 부담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민은 80%, 타 시·도민은 50% 할인된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여러 섬이 있어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가벼운 나들이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면서 “인천시의 여객선 운임지원 정책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이 모처럼 섬 여행으로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자의 노래 <섬마을 선생님>을 영화화한 <섬마을 선생님>의 배경이 됐던 대이작도, 길이 2km, 폭 500m의 황금빛 모래와 백사장이 있는 해수욕장과 백년이상 된 1천여그루의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덕적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삼 형제 섬 신시모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섬이 지척이니 5월 섬 나들이를 계획해보자.

## ① 휴식하는 섬, 대이작도

대이작도는 구경하는 섬이 아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휴식하다 돌아가는 섬이다.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기에 딱 좋다. 선착장에서 섬 동쪽 끝 계남마을까지 4km도 안 되니 두 발로 걸어서도 예닐곱 시간이면 섬 전역을 훑어볼 수 있다. 자월도, 승봉도, 소이작도와 함께 옹진군 자월면에 딸린 섬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대이작도까지 평일 3편, 주말 4편의 여객선이 운항한다.

## ② 산꾼들 사이에 소문난 섬 산행 명소, 덕적도

덕적도는 8개 유인도와 34개 무인도로 이뤄진 덕적군도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전체 넓이는 20.8km<sup>2</sup>이며 해안선 길이 37.6km에 이른다. 평지가 적고 산지가 많은 섬으로 산꾼들 사이에서는 섬 산행의 명소로 소문나 있지만 일주도로가 잘 닦여 있어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섬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기도 수월하다.

연안부두에서 덕적도까지는 하루 3편의 선박이 운항하며 서울 여의도 선착장에서 덕적도까지 부정기 유람선이 운항하기도 한다.

## ③ 삼도삼색 매력 신시모도, 4시간 자전거 코스로 완벽 ... 어린이도 무리 없이 완주 가능

신시모도는 신도와 시도, 모도를 일컫는 말로 일명 삼형제 섬으로도 불린다. 하나의 섬이 된 신시모도는 다 합쳐도 동서 6.3km, 면적 10.19km<sup>2</sup>의 작은 섬으로 하루 시간을 내 자전거 여행을 하기에 맞춤이다.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겨우 2km 떨어져 있는 신도는 배를 타고 10분 만에 닿을 수 있으며 시도와 모도는 다리로 연결돼 있다. 세 섬을 일주해도 25km 남짓으로 휴식을 포함해 4시간 정도면 충분하며, 작은 고개가 몇 군데 있지만 초보자나 어린이도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다. 삼목선착장에서 신도까지는 하루 20편의 여객선이 운항한다.

이밖에도 여객선 할인 혜택을 이용해 찾을 수 있는 섬으로는 옹진군의 백령도와 연평도, 강화군의 불음도가 있다.

백령도에서는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를, 불음도에는 천연기념물 304호인 1230년생의 남편 은행나무를 만나 볼 수 있다.

강화도 불음도는 선수선착장에서 여객선을 타고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1**

- 송기훈 기자



강화군 노인복지관 어르신 수영에어로빅교실



5월 5일, 인천관내 첫 모내기(대곡동 박길수,김용옥 농가)



김포문화재단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

#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 - 납세자 편의 위해 세무서와 합동신고 방안 마련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협업, 합동신고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 손택스 → 위택스(모바일 화면)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인천시 어느 군·구에서나 신고할 수 있고,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에 전화하면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31일(수)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방문 신고는 혼잡이 우려되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6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완화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짝수년도 출생자 올해 국가암검진 꼭 받으세요

인천광역시는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인 '짝수년도 출생자'에게 검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은 인천에서 매년 약 12,0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의 남·여 암 사망 1위는 '폐암'이며, 암 발생률의 경우 남성은 위암, 여성은 갑상선암이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요인, 환경 및 유전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암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조기에 진단, 치료까지 이어지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하위 50%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0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02,500원 이하)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암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신청

하면 올해 12월까지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 1577-1000)

시는 지리적 특성상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의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오는 7월부터 8월에는 '인천지역암센터'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섬에 방문해 암검진 뿐만 아니라 검

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인천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국가 암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등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 송기훈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대상 만 40세 이상 남녀</li> <li>■ 검진주기 2년 간격으로 실시</li> <li>■ 기본검사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li> </ul> <p><b>위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대상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sup>1)</sup> 해당자</li> <li>■ 검진주기 2년 간격으로 실시</li> <li>■ 기본검사 저선량 흉부 CT촬영 기본 검진</li> </ul> <p><b>폐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대상 만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sup>2)</sup> 해당자</li> <li>■ 검진주기 6개월 간격으로 실시</li> <li>■ 기본검사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li> </ul> <p><b>간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대상 만 50세 이상 남녀</li> <li>■ 검진주기 1년 간격으로 실시</li> <li>■ 기본검사 분변잠혈검사<sup>3)</sup> <small>*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내시경조영검사</small></li> </ul> <p><b>대장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대상 만 40세 이상 여성</li> <li>■ 검진주기 2년 간격으로 실시</li> <li>■ 기본검사 유방촬영술 및 임상진찰</li> </ul> <p><b>유방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대상 만 20세 이상 여성</li> <li>■ 검진주기 2년 간격으로 실시</li> <li>■ 기본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li> </ul> <p><b>자궁경부암</b></p>

1)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2022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스탬프 투어 진행

## 13일부터 23일까지, ‘스탬프 모으고 추억도 쌓으세요’



(좌) 강화전쟁박물관 (중) 강화자연사박물관 (우) 강화역사박물관



강화군이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전쟁박물관에서 ‘스탬프 투어 뮤지엄 꼭’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박물관협회(ICO) 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박물관의 힘, 박물관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이해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이 함께 참여한다.

강화군이 진행하는 스탬프투어 ‘뮤지엄꼭’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숨겨진 스탬프(QR코드) 찾아 모으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여방법은 지정 어플리케이션으로 박물관 내 숨겨진 QR코드를 스캔해 스탬프를 적립하면 된다. 추가 미션으로 인스타그램 AR필터로 스탬프를 꾸미고 뽐내 뮤지엄 꼭 계정에 올리면 당선작 10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정의 달에 강화군을 방문해 박물관 구석구석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며 추억도 쌓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강화군 문화관광과 ☎ 032-934-4296

# ‘강화고인돌 공원’에서 즐기는 선사체험

## 고인돌 탐방대원으로 사냥부터 고인돌 축조까지 체험 유물 발굴, 탁본 체험, 세계유산 사진전 등의 다양한 경험



고인돌 축조 체험

강화군이 강화고인돌 공원에서 ‘강화 고인돌 선사체험’을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강화 고인돌 선사체험’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으로 인류의 자산인 세계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공유하며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단위로 고인돌 탐방대가 되어, 부근리 고인돌을 탐방하며 사냥 체험, 제례의식, 고인돌 축조 등의 체험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토기, 장신구, 모형 움집 만들기, 유물 발굴, 어로, 탁본 체험, 세계유산 사진전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계유산에 대한 해설을 듣고 가이드 북을 전통책자 제작



고인돌 탐방대 체험

법인 오침법으로 엮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4월 30일 ~ 6월 12일, 9월 17일 ~ 10월 1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되며,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강화고인돌’ (<https://cafe.naver.com/dolbus>) 또는 ‘우리문화재보호회’(tel.010-5328-1400)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더욱 풍성하고 특별한 놀거리를 마련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기고

## 古稀고희



고수진  
강화향교 장의

이른 아침 이슬에 검정고무신  
봄옷이 젖고 논밭머리 매일  
해진 뒤에야 돌아 오니다

거름더미 이고지고 농기계 끌며  
흙투성이 봄같이 탈탈 채소 팔아  
“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구나.” 하더이다.

꽃봉우리 속 날아드는  
벌 나비 참으로 보기 좋고  
물을 차고 나는 한 쌍 제비  
정말 재미와 애정도 한껏 하더이다.

큰길가에 큰 집 새로 짓고  
엄마 아버지 서로서로 보듬어  
손님같이 보배같이 아껴서  
萬壽平康만수평강 기원합니다.

“哀此鳧獨(애차경독) 홀로되어 외로운 이를 애뜻이 여긴다.” 요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어르신들의 孤獨死고독사입니다. 소위 鰥寡孤獨환과고독이라 합니다. 홀아비, 과부,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어르신, 사실 부모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老常노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면 잘사는 거다.” 우리의 가정이 급속히 해체되고 파괴된 현상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는 ‘부부의 달’이라 해도 무방할 겁니다. 부부가 가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이요, 부부의 불행은 가정의 불행으로 연결됩니다. 가정은 부부를 최소 단위로 해서 위로는 부모님이 있고, 아래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필수불가결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눈치 때문이라도 서로 남편 대우를 해줬고, 남편은 은밀히 아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막된 욕을 하며 말다툼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막말로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참고 산 덕에 가정을 지키고, 가난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외숙께서 ‘古稀고희’를 맞았습니다. 필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외가로 달려갔습니다. 이모부님, 이모님들이 벌써와 계시고, 작은 외숙께서도 외숙모와 함께 와 계셨습니다. 큰외숙모께서는 자녀들과 음식 준비에 분주하였고, 집안에서는 온통 맛있는 음식내가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이제는 연세들이 지긋했지만 형제 남매간의 대화는 전혀 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밝고, 어릴 적 오누이 모습 그대로 다정했습니다. 당나라 시인 杜甫두보는 “人生七十古來稀(인생칠십고래희) 예로부터 사람이 70을 사는 이가 드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일흔 살이 넘도록 살지 못했다’ 함은 살림살이 궁핍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그만큼 넉넉하지 못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60-70이 청춘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시골 마을회관에서는 막내로 취급받아 잔심부름을 도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사회의 현장 곳곳에서 제 역할을 마다치 않고, 老當益壯노당익장을 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외숙께서도 아직 농기계를 다루며 농사일에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古稀宴고희연 당일에도 밭에서 일하고 점심시간 겨우 시간을 맞춰 오셨습니다. 급히 작업복을 갈아입으시고, 자식들이 마련한 칠순 떡에 싱싱한 과일이 풍성한 생신상에 앉으셨습니다. 마치 돌상에

앉은 갓난아이 같은 純真無垢순진무구의 표정이었습니다. 외숙께서는 오로지 농사일로 自手成家자수성가 하셨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이제 큰길가에 대궐은 집을 짓고 고희연을 맞으신 겁니다. 하지만 초췌한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벽 쪽의 현수막을 보고 눈시울 뜨거워졌습니다.

“70년,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사랑과 정성으로 살피주시고 아껴주신 은혜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솔한 자식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체국 다닐 적에, 마을에서 좀 외진 곳에 목사님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 요양원에 위탁하고는 플래카드를 요양원 입구에 가로질러 매달아 놓았습니다. “어머니 만수무강 하세요.”였습니다. 요양원에 내맡긴 채,,, 이 문구 참 허탈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필자는 某모 요양원에 방문해서 洗足式세족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몽클한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필자 역시 팔순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입장이라,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子曰, “父母之年, 不可不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  
자왈, “부모자년. 불가부지야. 일즉이희, 일즉이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연세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기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 장수하시는 일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연세 드실수록 기력이 떨어지시고, 기억력도 희미해지시고, 식사량 점점 줄어 초췌해지시고, 가실 날이 머 았았음에 애뜻한 마음에 늘 勞心焦思노심초사한다는 의미입니다. 『論語논어』 「里仁」 21의 문구입니다.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자효쌍친락 가화만사성) 자식들이 어버이에게 효도하여 즐거워하시면, 가정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몇 천 번을 들어도 진리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처님 오신 날이 있고, 스승님의 날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회 공동체 관계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사회의 풍요를 낳습니다. 이는 온 국민이 건강하게 長壽장수할 수 있는 기반인 것입니다. 고희연을 맞아 외숙께서 쉬엄 쉬엄 平康평강한 노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일부 가정 내의 부모에 대한 悖倫패륜, 자녀 학대. 어린이 집의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요양원내에서는 어르신들을 팔시, 굶긴다는 소식은 야수에 가까울 지경입니다. 가정의 사랑과 효도는 順天순천입니다. 이를 逆順역순하는 우리 사회의 악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어버이 날’ 仰祝앙축드립니다. ▣

# 덕신고등학교, 정성 담은 감사상자 전달 어버이 날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 전해

강화군 덕신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4일 어버이 날을 맞아 감사 상자 50박스(2백만 원 상당)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감사 상자에는 쌀, 라면, 고추장, 참치 통조림 등 생필품 12종으로 구성해 상자 조립부터 품목 채우기까지 학생 등이 직접 준비했다. 또한 감사 편지와 카네이션을 동봉해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2022 New Start 진로비전캠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군은 교육경비로 매년 25억 원 이상을 편성해 ▲초·중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각종 창의체험 활동 ▲진로·진학프로그램 ▲명문 우수고교 육성 ▲자율형 공립학교 및 행복 배움학교 ▲기숙사생 학력향상 ▲강화섬 외국어 교실 거점학교 ▲초등 등·하교 안심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권영현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전달식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권영현 군수 권한대행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건강참살이 피부는 햇빛을 싫어하지만 진드기를 더 싫어합니다.

**진드기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 모자
- 장갑
- 장화
- 등산화
- 목수건
- 장갑
- 땀자리
- 목이 긴 양말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기피제 X 기피제 O

**예방 3** 풀숲 피하고

**털고**  
매일 손으로 손가락 문지르기

**씻고**  
원신 세제 옷건드기 하기

**빨래하고**  
이외복 분리 세탁하기

강화군보건소

올해 강원도내에서 첫 중증열성감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밭일 중 야생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강원도 내에서 152명이 SFTS에 감염돼 24명이 숨졌다.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또는 동물을 물어 흡혈하는데 대부분 진드기의 활동 시작 시기인 봄철(3월)에 산나물 채취, 텃밭 작업, 농작업, 등산, 산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릴 수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의 종류로는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등이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SFTS는 고열(38°C 이상),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 혈뇨, 혈변,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한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다른 감염병에 비해 평균 18.5%의 치명률로 매우 높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에 물렸다면 손으로 터트리거나 떼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드기를 제거해야 2차 감염될 막을 수 있다. 만약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손으로 떼지 말고, 피부 깊숙이 핀셋을 밀어 넣어 진드기를 제거 후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전 팔·다리의 피부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밝은 계열의 소매가 긴 옷, 장갑, 목이 긴 양말 등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휴식 시 풀밭에 앉지 말고, 돛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귀가 후 옷을 세탁하고, 목욕(샤워)을 하며 몸에 벌레 물린 상처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진드기 기피제는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 등 등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진료 시 의료진에게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알려야 한다.

- 권주형 기자

**Photo NEWS** 내고향을 훈훈하게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불은면\_100세 어르신 카네이션 전달

강화군노인복지관 가정의 달 문화행사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교통안전 캠페인

★마지막 한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사는 계속됩니다.★

# 황소 마을 7주년 감사 행사



지난 7년간 황소마을을 사랑해주신 고객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암소·암돼지 전문**  
살치살·토시살·안창살·  
갈비살·등심

**암돼지 (유황돼지고기)**

생 목살	<del>15,000원</del>	▶ 9,900원
생 삼겹살	<del>15,000원</del>	▶ 11,900원
생 양념갈비	<del>17,000원</del>	▶ 13,900원

소고기는 하루 전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032.932.9595**



**정관장 강화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1층  
M. 010.5313.3368

대표 김형식

**032) 933.2304**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